

경상북도 통계웹진

2015년 8월 제2호 | 계간발행 | <http://stat.gb.go.kr>

발간사

(경상북도 법무통계담당관 최병호)

올해는 광복 70주년이자 인구주택총조사가 실시되는 해로서 경북웹진 제2호는 해방 70년과 인구 변화를 주제로 잡았습니다.

언론에서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하여 다양한 소재로 보도하였으나 1946년 미군정청하에서 실시한 인구조사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해방직후 인구의 변화로 주목할 사항은 출산율이 이전년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는 점입니다. 보통 베이비붐은 종전후 일어나는데 우리 민족에게 해방의 기쁨은 종전만큼이나 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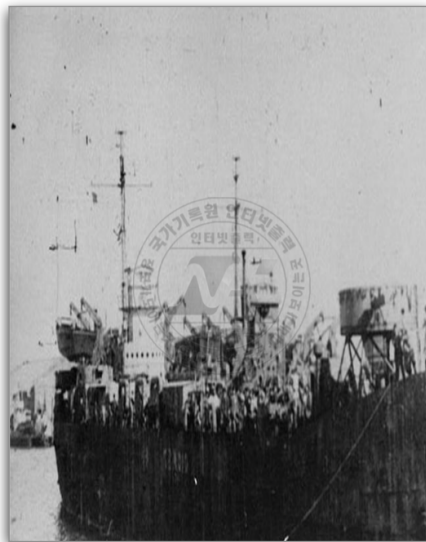
조사과정에 대한 상세한 기록은 없지만 콜레라 유행으로 인해 조사기간이 일부 지역에서 연기된 점, 현장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호적부 등 행정자료가 사용된 점, 전문조사원을 채용하지 않고 행정기관에 의해 조사가 진행된 점 등은 신생독립국으로서 허약했던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11월에 실시되는 19회 인구총조사는 먼 후대가 보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 사진 : 해외에서 귀국하는 동포(국가기록원)

해/방/직/후 인/구/변/화

해방직후의 인구현황자료가 담긴 미군정청의 '남조선(38도이남) 지역 및 성별 현주민구' 보고서에 따르면 해방 1년후 인구는 해방 1년전에 비해 350만명(경북도는 62만명) 증가하였다. 조사 2년전에 비해 인구가 350만명의 증가하게 된 요인으로는 기록적인 자연증가 70만명, 징병징용 인구 220만명 귀국, 기타 미확인 6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1946년 현주민구조사는 미군정청 보건후생부 생정국(Bureau of Vital Statistics, Department of Public Health and Welfare)이 실시하였는데, 미군정청이 1946년 8월 20일부로 전국 시도지사에 발송한 조사공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조사의 목적은 긴급후생프로그램에 필요한 기초자료작성을 위해 실시한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조사 과정

애초에는 1946년 8월 25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당시 전국적으로 유행하였던 콜레라로 2~3개 도의 보건후생부 직원이 방역에 동원되어 결과적으로 조사기준일이 9월로 조사가 된 지역도 발생하였다. 현장조사도 인구조사표를 이용한데도 있지만 호구조사표로 자료를 수집한 시도도 있었다. 또한 당시 일본의 패망으로 일본인 귀국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었기에 일본인은 제외하고 조선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보고서는 적고 있다.

조사 기준

조사대상은 북위 38°이남 조선내에 현주하는 조선인이었고, 1946년 8월 25일 0시 현재 각 부읍면 단위 현주자(현재 거주자)를 대상으로

인구총조사의 기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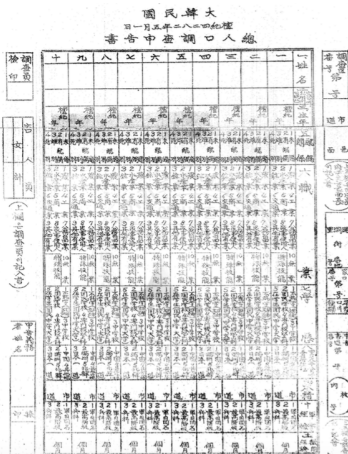
근대적 인구주택총조사는 일제강점기하 1925년 최초로 실시되었고 매 5년주기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제5회 조사는 일제의 전쟁동원을 위해 1944년에 간이로 실시되었고 그결과는 그 이듬해인 1945년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일제 패망과 함께 발표되지 못하고 간이결과만 발표되었다. 이후 1949년에 대한민국정부 수립후 총인구조사라는 이름으로 최초의 1회조사가 실시되었다.

국립기록원은 인구총조사관련에 대해 몇가지 기록을 공개하고 있는데 이하는 인구총조사와 관련된 자료이다.

<1949년 인구총조사 기념우표>



<1949년 인구총조사 조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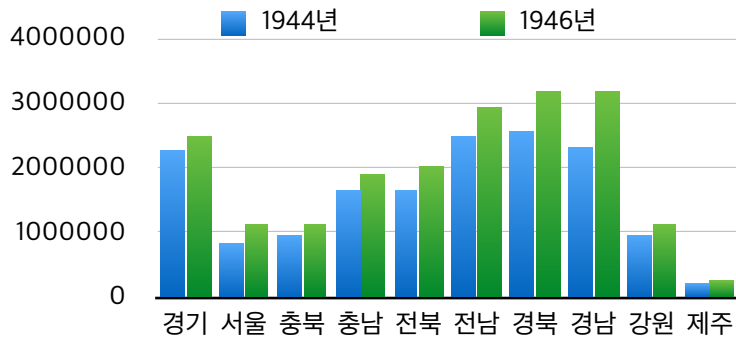


실시되었다. 현주자의 분류는 (1) 본적자 또는 임시거주자(寄留人), (2) 현거주지에 정착하려는 자, (3) 출장자, 타지방 체류자, 유학생, 감옥·유치장 구급자는 생활근거지에 현주자로 귀속하였고 군복무종사자, 광산, 공장, 기타 사업체 취업자(임시 취업자는 제외)는 사업체 소재지의 현주자로 간주하였다. (4) 삼팔선 이북이 생활근거지인 유학생은 유학지의 현주자로, (5) 삼팔선 이북에 생활근거지를 가진자로서 귀향하지 못하는 자 중 삼팔선 이남에 생활근거지가 없는 문전취식자 혹은 일정한 생활근거지가 없는 사람은 조사 당시 소재지의 현주자로 구분하였다.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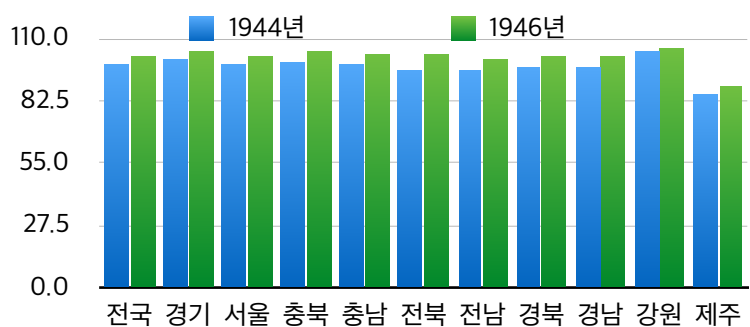
1946년 8월 20일(일부 시도는 9월) 현재 38도선 이남의 조선인 총인구는 19,369천명으로 1944년 일제하 실시된 인구총조사 결과인 15,879천명에 비해 3,490천명(2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보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이 서울시와 경기도였다. 서울시는 1,142천명으로 2년전에 비해 316천명(38.2%) 증가하였고, 경기도는 3,186천명으로 868천명(37.4%) 증가하였다. 경북도도 3,179천명으로 617천명(24.1%) 증가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해방전후 2년간 시도별 인구변화>



해방 1년전에는 남녀성비가 여자백명당 남자 97.7명으로 여자인구가 남자인구를 초과하는상태였으나 해방 1년후에는 여자백명당 남자 102.2명으로 지역별로는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전 시도가 남자인구가 여자인구를 초과하는 상태로 전환되었음을 보고서는 주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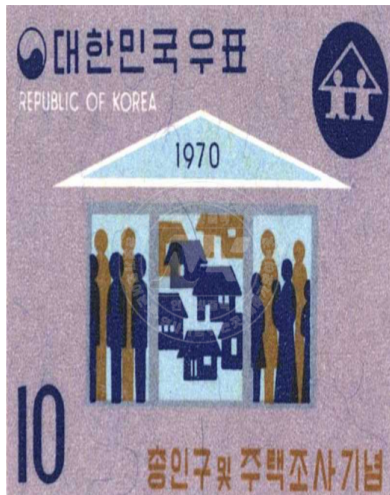
<해방전후 2년간 성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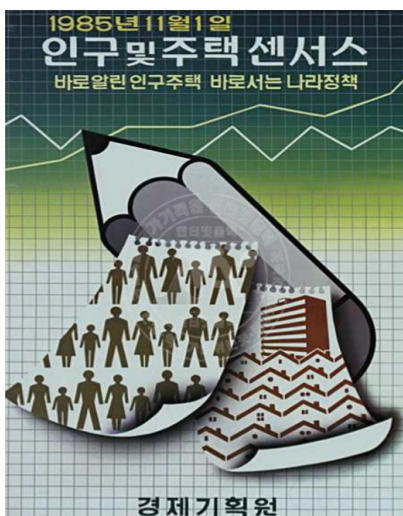
<1960년 인구총조사 홍보영상>



<1970년 인구총조사 기념우표>



<1985년 인구총조사 포스터>



결과분석

해방 1년전 대비 350만의 인구증가와 성비역전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여야 할까? 여기에 대해 1946년 현주인구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먼저 출생아수에서 사망자수를 뺀 자연증가 인구가 70만명 이상으로 해방전까지 조선인의 출생률이 1.7%(연간 27만명)였음을 고려할 때 마치 전후 출산률이 이상적으로 높아지는 것처럼 해방이후 높은 출생 증가가 있었다.

두 번째, 해방이후부터 귀국자수 파악을 위한 장비가 설치된 1945년 10월 15일까지 귀국자가 35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이후 1946년 10월 2일까지 외국에 등록된 해외에서 귀국하였거나 북한으로부터 월남한 사람의 수가 188만명으로 집계되기에 총 220만명 정도가 해방후 1년사이에 귀국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세 번째, 일제가 패망후 소각에 의해 조선인 징집, 강집기록을 소각하여 그 규모를 알 수는 없으나 많은 규모의 인구가 1944년 인구총조사 이전에 조선을 떠남으로써 그해 총조사에는 제외되었다.

네 번째, 해외로부터 귀국할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이 대부분 남한에만 있었기 때문에 귀국자의 상당수가 이전 북한 주민이었다.

다섯 번째, 1945년 10월 15일이전 중국 북부지역, 만주, 일본, 북한으로부터 남한으로 인구이동이 그 당시 알려졌던 것 보다 규모가 더 컸다는 것과 이들 유입인구의 대부분이 북한지역 주민이었다.

여섯 번째, 일본의 태평양전쟁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총동원을 위한 인구자료가 필요하였고 그 결과 5년 조사주기를 무시하고 1944년간인구총조사가 실시되었다. 1944년을 전후로 해서 일제의 징집, 징용 정책이 자율적 등록에서 강제징집으로 변화하였고, 그 해 총조사가 의무할당인원을 작성하기 위해서 실시된다고 보았기에 조선인들은 실제 인구를 은폐할 유인이 컸었다. 그 결과 1944년 총조사상 인구는 실제보다 적게 조사되었고 1946년 인구조사와 인구격차는 수치상보다는 적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1946년조사에서 이중집계되는 인구의 수로 인해 1946년 인구가 상당히 부풀려지게된 원인이 될 수도 있다. ■

해방직후부터 지금까지 지역 인구의 변화

해방후 행정구역 변화

1945년 해방후 행정구역은 일제강점기의 행정구역이 그대로 유지되어 북위 38도선 이남지역의 행정구역은 1시 8개도였다가 1946년 제주도가 전라남도에서 독립함에 따라 1시 9개도 체제로 바뀌었다. 주의할 점은 지금은 북한에 편입된 38도선 이남 황해도 개성지역이 경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였다.

경상북도의 행정구역은 1부 22개군, 1도로 구성되었는데, 현재 대구시인 대구부, 달성군, 군위군, 의성군, 안동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영일군, 경주군, 영천군, 경산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김천군, 선산군, 상주군, 문경군, 예천군, 영주군, 봉화군, 울릉도가 그것이다. 현재 울진군은 1963. 1. 1.부로 강원도에서 경상북도로 편입되었다.

이후 1981. 7. 1.부로 대구시가 정부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월배읍 등 달성군 일부와 안심읍 등 경산군 일부, 칠곡군 칠곡읍이 대구직할시에 편입되어 분리되었다.

1995. 1. 1.부 도농통합으로 달성군이 대구시로 편입되고 현재 23개 시군체제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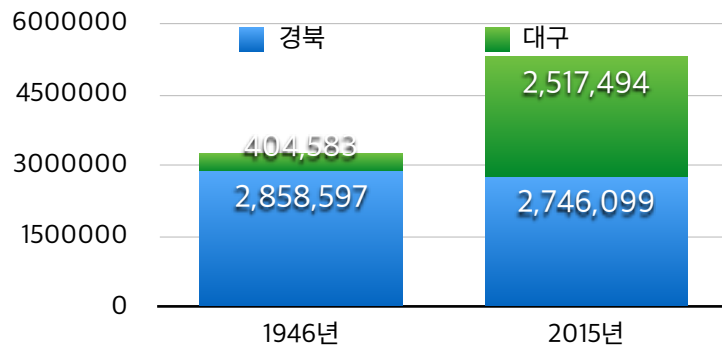
■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해방후와 현재기준의 인구를 비교하여보았다. 해방후부터 지금까지 크고 작은 행정구역의 편입 및 분리가 일어났으나 크게 대구시와 달성군의 분리, 울진군의 편입이라는 3가지 변화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작은 변화를 무시한 상태에서 전체 시군별 총인구수의 변화를 집계하여 보았다. 이용한자료는 미군정청이 발간한 '남조선(38도 이남) 지역 및 성별 현주민구'보고서(1946)와 '경상북도 주민등록인구'(2015.6.30기준) 자료를 비교하여 보았다.

총인구의 변화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해방직후 1946년 경상북도의 인구는 2,859천명이었으나 2015년 2,746천명으로 69년전에 비해 112천명 연평균(-0.1%) 감소하였다. 이에 비해 대구시는 1946년 405천명에서 2015년 2,517천명으로 2,113천명(연평균 2.7%) 증가하였다.

<1946년과 2015년 지역인구>



시군별 변화

1946년 당시 대구를 제외하고 인구가 많은 지역은 상주시 222천명, 포항시 221천명, 경주시 220천명의 순이었고, 작은 지역은 울릉군 13천명, 영양군 48천명, 청송군 63천명이었다.

2015년 현재까지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가장 큰 시군은 구미시로 1946년 101천명에서 2015년 426천명, 연평균 증가율 2.1%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이어 포항시가 221천명에서 523천명으로 연평균 1.2% 증가하였고, 경산시가 126천명에서 263천명으로 연평균 1.1% 증가하였다.

반면에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가장 낮은 시군으로는 의성군으로 1946년 180천명에서 2015년 55천명으로 연평균 -1.7% 증가하였고, 다음으로 예천군(-1.6%), 봉화군(-1.56%)이 뒤를 잇고 있다. ■

해방후 69년간 시군별 인구의 변화

	1946년			2015년			연평균 증가율
	계	남	여	계	남	여	
경 북	2,858,597	1,446,818	1,421,839	2,746,099	1,385,471	1,360,628	-0.1
포항시	220,997	111,648	109,349	522,880	265,197	257,683	1.3
경주시	219,883	115,202	114,681	269,313	136,554	132,759	0.3
김천시	184,158	94,170	89,988	138,773	69,277	69,496	-0.4
안동시	199,750	100,627	99,123	169,565	83,482	86,083	-0.2
구미시	101,360	51,321	50,039	426,326	218,073	208,253	2.1
영주시	115,832	57,928	57,904	111,094	55,171	55,923	-0.1
영천시	155,129	78,514	76,615	103,491	52,797	50,694	-0.6
상주시	221,643	111,731	109,972	103,333	50,594	52,739	-1.1
문경시	129,523	65,408	64,115	76,158	37,294	38,864	-0.8
경산시	126,210	64,145	62,065	263,140	133,291	129,849	1.1
군위군	71,588	36,113	35,475	24,666	12,492	12,174	-1.6
의성군	179,653	90,559	89,094	55,438	27,073	28,365	-1.7
청송군	62,678	31,813	30,865	26,612	13,175	13,437	-1.3
영양군	48,138	24,295	23,843	18,206	8,918	9,288	-1.4
영덕군	93,444	46,697	46,747	40,096	19,202	20,894	-1.2
청도군	109,529	55,254	54,275	44,633	21,834	22,799	-1.3
고령군	68,356	34,289	34,067	36,468	19,081	17,387	-0.9
성주군	103,681	52,475	51,206	46,998	24,443	22,555	-1.2
칠곡군	97,986	49,219	48,767	125,843	65,981	59,862	0.4
예천군	139,889	70,219	69,670	45,363	22,191	23,172	-1.6
봉화군	101,436	51,195	50,241	34,088	16,891	17,197	-1.6
울진군	94,490	47,205	47,285	53,183	26,843	26,340	-0.8
울릉군	13,244	6,791	6,453	10,432	5,617	4,815	-0.4
대 구	404,583	202,748	201,835	2517494	1254479	1263015	2.7
대구경북	3,263,180	1,649,566	1,623,674	5,263,593	2,639,950	2,623,643	0.7